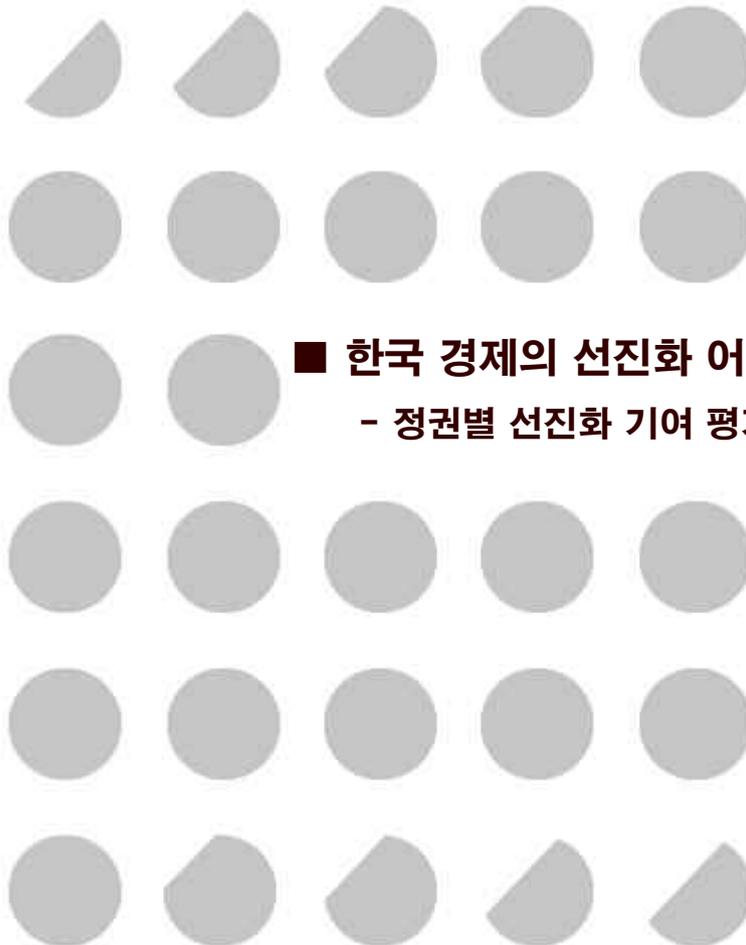




08-31 (통권 309호)

2008.8.14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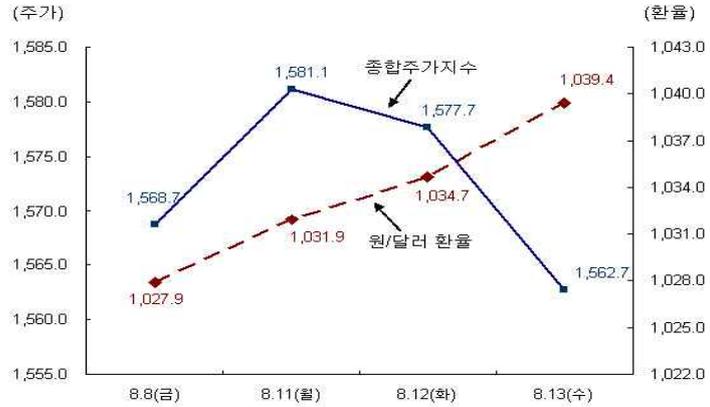


■ 한국 경제의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 정권별 선진화 기여 평가와 MB정부의 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8~8.1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 경제의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 정권별 선진화 기여 평가와 MB 정부의 과제	1
주간 경제 동향	17
□ 실물 부문 : 실업률 다소 개선	17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 상승세 지속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이 부 형 연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 이 성 룡 연구 위 원 (3669-4457, leesy@hri.co.kr)
 : 정 유 훈 연구 위 원 (3669-4014, youhun@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 경제의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 정권별 선진화 기여 평가와 MB정부의 과제 -

■ 건국 60년, 경제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올해로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한국 경제는 세계 최빈국에서 2007년에 GDP기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급성장하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선진화 수준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에서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3개국을 대상으로 선진화지수를 산출하여 한국 경제의 선진화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선진화지수는 경제적 풍요도, 사회복지, 잠재성장력, 환경, 세계화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26개 세부 지표를 선정하여 산출하였다 한편 동일 지수를 가지고 국내 정권별 선진화 기여도를 평가해 보았다.

■ 한국 경제의 선진화 정도 :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 경제적 풍요도와 세계화는 큰 진전. 환경과 사회복지의 최약, 단, 잠재성장력 부분은 상위권

한국의 선진화 정도를 OECD 23개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2007년 현재 선진화 지수가 51.5점으로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17위를 차지하여,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풍요도, 잠재성장력, 세계화는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중상위권이거나, 사회복지, 환경 부문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부문이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의 경제적 풍요도와 세계화는 비교 대상 23개국 중 중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적 풍요도 지수는 53.4점으로 비교대상 23 개국 가운데 13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선진국인 미국 71.2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세계화 지수는 52.1점으로 12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들과의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한국의 환경 지수는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의 환경 지수는 52.3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16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GDP 대비 에너지 소비 지수가 50 점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17 위 인구 대비 CO2 배출량 지수 점수가 44.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사회복지 지수는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수는 45.4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20위였다. 이는 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 부패율 지수가 38점으로 최하위, 또 GDP대비 의료 지출비 지수가 40.6점으로 최하위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잠재성장력 지수의 경우 54.2점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10위를 차지하여, 다른 지표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잠재성장력 지수에 포함된 GDP 대비 교육지출 비중(4위), GDP 대비 R&D 투자 비중(9위),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8위)의 3개 지표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들었기 때문이다.

■ 한국의 정권별 선진화 기여 정도 평가

(종합 평가)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을 포함한 전체 선진화는 박정희 정부, 사회복지 는 노무현 정부, 환경은 김대중 정부, 세계화는 전두환 김영삼 정부가 가장 크게 기여

첫째,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1963~197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별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박정희 정부가 해당 정부의 초기 대비 말기 선진화 진전 정도가 153.6%로 타 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풍요도 지수가 408.9% 개선, 잠재성장력 지수 또한 228.1%나 개선되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둘째, 사회복지 선진화는 노무현 정부 (2003~2007년)에서 8.7%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김대중 정부(1998~2002년)은 환경 선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환경 선진화는 김대중 정부 당시 26.5% 개선되어, 타 정부에 비해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넷째, 세계화는 전두환 정부 (1980~1987년)와 김영삼 정부 (1993~1997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세계화 지수는 전두환 정부 당시 185.6%나 개선되었다. 이는 세계화 지수에 포함된 세부 지표 가운데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가 집권 초 대비 집권 말에 약 643%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관광객 유입수 또한 114.1%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세계화 지수는 149.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집권 초 대비 말에 567.6%나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정권별 평가)

박정희 정부(1963-1979년) :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의 급상승으로 선진화 지수가 153.6%나 개선되었으나 사회복지 는 최악

첫째, 가계소비 규모가 집권 초 대비 말에 1,620%나 급증하면서 경제적 풍요도 또한 408.9%나 개선되어,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을 보였다.

둘째, 이 시기에 특허 등록 건수와 GDP 대비 R&D 비중이 각각 536.3%, 130%씩 급상승하면서, 잠재성장력 또한 급등하였는데 이 또한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셋째, 하지만 사회복지 지수는 조세 부담률의 급증(96.5%) 과 범죄율의 증가(50.3%)로 정부 초에 비해 말에 43.2%나 감소, 크게 후퇴하였다.

전두환 정부(1980-1987년) : 경제적 풍요도의 급증세 지속, 세계화의 급진전 등으로 선진화 지수가 44.3% 개선되었으나 환경 부문은 크게 후퇴

첫째, 전두환 정부는 세계화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세계화 지표로 선정된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가 집권 초 대비 집권 말에 약 643%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관광객 유입수 또한 114.1%나 증가하였다.

둘째, 경제적 풍요도 또한 지속적으로 급증하였다. 가계소비 급증세 (130.1%)가 이어

지고 GDP 규모가 급격히 확대(120.4%)되면서 1인당 GDP가 동반 상승(약 102%)하여 경제적 풍요도가 98.2%나 개선되어 박정희 정부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개선 속도를 나타냈다.

셋째, 반면 환경 부문의 선진화는 크게 후퇴하였다. 환경 분야의 지수는 에너지 원단위의 급상승(550%)과 이산화탄소 배출량(35%)과 오수 발생량(31.8%)증가로 정부 초에 비해 말에 비해 약 118%나 감소하여, 환경 부문에 있어서 역대 정부 중 개선도가 가장 저조하였다.

노태우(1988-1992년) 정부 : 잠재성장력이 지속 상승되었으나, 환경과 세계화 후퇴

첫째, 박정희, 전두환 두 정부에 이어 경제적 풍요도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앞의 두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소비 증가세(104.2%)가 이어지고 GDP규모(76.7%)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1인당 GDP도 동반하여 69.7%나 확대되면서, 경제적 풍요도가 62.6% 개선되었다.

둘째, 이 시기는 박정희 정부 다음으로 잠재성장력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특허 등록 건수와 기술무역 수지비가 각각 383.1%, 300%로 급상승하면서, 잠재성장력이 150.4%나 개선되었다.

셋째, 하지만 이 시기에는 환경과 세계화 부문의 선진화가 후퇴한 시기이기도 하다. 우선 환경 부문의 경우 폐지 재활용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원단위, 화에너지 사용 비중의 4개 지표가 각각 31.7%, 46.1%, 9.1%, 14.8%씩 악화되어, 환경 지수가 15.8%나 악화되었다. 또, 세계화 부문의 선진화 또한 지연되었는데 GDP대비 무역 비중,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이민자 수가 각각 18.8%, 30.3%, 43.1% 감소하였다. 그 결과 세계화 지수는 17.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1993-1997년) :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된 반면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환경 부문이 후퇴하면서 선진화 수준이 정체

첫째,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분야가 가장 크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GDP대비 외국인투자가 집권 초 대비 말에 567.6%나 증가하였고, GDP대비 무역량도 25.9%나 증가하여 세계화 지수가 149.6%나 개선되었다.

둘째, 그러나 경제적 풍요도와 환경은 오히려 전 정부에 비해 개선도가 약했다. 우선 경제적 풍요도는 실질GDP와 가계소비규모가 각각 집권 초 대비 말에 42.1%, 49.8%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 정부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적 풍요도 지수가 전 정부에 비해 개선도가 하락하였다. 또, CO2 배출량 증가세 지속(37.7%)과 오수 발생량 증가(16.5%), 1차 에너지 소비량 증가(9.4%)로 환경 지수가 6.5% 감소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 : 환경 부문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세계화 후퇴로 선진화 지수는 소폭 개선에 머뭇

첫째,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원단위가 집권 초 대비 말에 164.2%나 개선되

면서, 역대 최고 수준(26.5%)으로 선진화되었다.

둘째, 다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세계화 지수가 집권 초 대비 말에 7.4%p 감소하면서 선진화 지수가 전 정부에 비해 14.6%p 둔화되었다. GDP 대비 무역량이 집권 초 대비 말에 14.3% 감소, 해외이주 신고자 수도 동 20%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 사회복지 부문 선진화는 역대 최고 수준,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 기여는 저조

첫째,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의 선진화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GDP 대비 의료지출비가 집권 초 대비 말 18.5%, 의료기관수는 11% 증가하였다. 특히 전 정부 이래 증가일로에 있던 범죄건수가 8.7% 감소하면서 사회복지 부문 지수가 8.7을 기록, 역대 정부 가운데 이 부문의 개선 속도가 가장 빨랐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경우, 선진화 지수가 23.8%로 역대 정부 중 선진화 기여 순위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풍요도, 잠재성장력, 환경의 세 선진화 지표들이 전 정부에 비해 각각 15.2%p, 4.7%p, 21.9%p 악화되었다.

■ MB 정부의 선진화 과제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가운데 경제적 풍요도가 하위권에 있어 여전히 경제적 풍요도의 향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잠재성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선진화 비전을 분명히 하고 국력을 결집시키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세계화 기반의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의 선진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한미, 한중, 한일 FTA 완결 등을 통해 세계화 기반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거주자 증대와 같은 다문화 촉진, 외국인 방문자수와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꾀해야 한다.

셋째, 한국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개선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범국민적인 에너지 원단위 개선 노력,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환경 기술 개발 강화, 환경 정부개발원조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충실히 확충시켜야 한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양극화 심화, 국내 사회의 다원화 진전, 사회적 신뢰도의 중요성 증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선진화가 정부별로 특정 분야에 편향되고 집중된 경향을 보여 왔으나, 지금부터는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국가비전 책정 시 선진화 대상 각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구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통합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 경제의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
- 정권별 선진화 평가와 MB 정부의 정책 과제 -

한국의 선진화도 국제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 지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풍요도, 사회복지, 잠재성장력, 환경, 세계화의 5개 지표 → 세부 지표로는 26개 지표를 선정 -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 : 선진화 종합지수 51.5점으로 17위
--------------------------	--

한국의 정권별 선진화 정도 평가	박정희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선진화에 가장 큰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풍요도 1위, 잠재경쟁력 1위 - 사회복지 최약
	전두환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진전에 가장 큰 공헌 - 경제적 풍요도 급성장 지속 - 환경부문 크게 악화
	노태우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풍요도 지속 확대 - 잠재경쟁력 급상승 지속 - 환경과 세계화 후퇴
	김영삼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급진전 - 경제적 풍요도, 잠재경쟁력 개선 속도 급감 - 환경 악화 지속
	김대중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선진화 역대 정부 중 1위 - 경제적 풍요도, 잠재경쟁력 회복 - 세계화 후퇴
	노무현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와 복지 선진화 역대 정부 중 1위 - 경제적 풍요도, 잠재경쟁력, 환경 선진화 속도 감소 - 세계화 후퇴 지속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풍요도 향상 노력 가속 - 세계화 기반의 전략적 활용 - 환경 선진화 노력 가속 - 사회복지 정책 강화 - 부문별 조화로운 선진화의 전략적 추진
------------	--

1. 선진화의 개념

○ (개념) 일국의 선진화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중심으로 복지, 선진적인 정치사회시스템, 국제화 등 구미 선진국 사회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국가성장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국가 간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국내 선진화에 대한 논의 :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한국선진화포럼, 전상인(2007), 정책기획위원회(2006), 윤창현(2007)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선진화포럼 : 산업화를 통한 운택한 경제생활의 영위, 민주화를 통한 신뢰사회 구축, 복지사회 건설을 통한 공동생활 향유로 선진화를 정의

· 전상인(2007) : 국가발전모델 상 후기발전국가가 선진화를 이루고 있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보시대에 맞는 지식강국, FTA를 통한 통상대국, 문화부국, 삶의 질이 뛰어난 안민난국이 후기발전국가에 해당

· 정책기획위원회(2006) : 국민통합과 지속 가능한 선진화의 기틀을 갖추는 종합적인 능력을 선진화로 정의하는데 사회통합, 양성평등,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사회복지를 중시

· 윤창현(2007) :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구성된 모두가 최소한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선진화로 정의하고 시장 중심 경제체제, 지속가능 성장 토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중시

- 해외 선진화에 대한 논의 : 해외에서의 선진화 논의는 Schwab(1979), IMD, WEF를 중심으로 성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위원회의 경우는 기존의 성장력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력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Schwab(1979) : 국가 간 성장력 평가에 있어서 선구적인 연구로서 10가지 성장력을 나타내는 요소의 가중 평균치로 선구적 성장력지수(Pioneering Competitiveness Index)를 도출

· IMD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은 국가의 성장력을 경제적 성과, 정부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인프라의 4가지 대범주로 구분, 전체 330개 이상의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국가 성장력 지수를 산출

· WEF : 세계경제포럼은 제도, 정책, 생산성 결정 요인의 3개 대범주, 12개의 중범주에 대한 개별 평가 값을 가중 평균하여 국가 성장력 지수를 산출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위원회의 경우 기존의 성장력 평가 방법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력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제, 사회, 혁신·기술·정보·교육, 환경, 세계화의 5가지 대범주로 하고, 세부지표들을 구성하여 국가 성장력을 종합·평가

< 주요 선진화 개념 및 평가 방법 >

구분	개 념	평가 방법
한국 선진화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를 통한 윤택한 경제생활 영위 · 민주화를 통한 신뢰사회 구축 · 복지사회 건설을 통한 공동생활 향유 → 민생을 선진적 수준으로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 · 선진적 권력체계· 사회복지제도 확충 · 열린 세상, 마음 운동 · 국제역할의 선진화
전상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발전모델의 논의를 통한 후기 발전국가론의 큰 틀을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대에 맞는 지식강국 · FTA를 통한 통상대국 · 문화상품의 고품질을 위한 문화부국 · 삶의 질을 위한 안민난국
I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nomic Performance(80) · Government Efficiency(73) · Business Efficiency(70) · Infrastructure(108)
정책 기획 위원회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선진화의 기틀을 갖추는 종합적 능력을 위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 양성평등 · 노동시장, 노사관계 · 사회복지
W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etitiveness as the set of institutions, policies, and factors that determine the level of productivity of a coun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itution · Infrastructure · Macroeconomy ·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 Good market efficiency · Labor market efficiency · Financial market sophistication · Technological readiness · Business sophistication · Market size, Innovation · 12가지 지표들의 가중평균치(국제기준)
Schwab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oneering competitiveness index from the report on the Competi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가지 요소의 가중평균치
윤창현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구성된 모두가 최소한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주의적 시장중심 경제체제론의 공고한 구축 ·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국민들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 마련

< Joint Research Centre, European Commission >

구분	항목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nomic Sentiment Indicator(EU) · Composite Leading Indicator(OECD) · Internal Market Index(EC) · Doing Business Indicator(World Bank) · Index of Economic Freedom(Heritage Foundation) · Economic Competitiveness Index(Institute for the Management Development) · Human Tourism Index(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Development Index(United Nations) · Health System Achievement Index(WHO) · Corruption Perception Index(Transparency International) ·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Gini Index(United Nations) · Wellbeing Index(Prescott-Allen) · Genuine Progress Indicator(Redefininf Progress)
혁신, 기술, 정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mmary Innovation Index(EU) · Innovation capacity Index(Porter and Stern) · Investment/Performance in the knowledge based economy Index(EC) · Technology Achievement Index(United Nations) · The networked Readiness Index(Havard University - Centre for Interantional Development) · E-Government Ranking(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WEF) · Air Quality Index(WEF) · Environmental Index(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WEF, Yale & Columbia Universities) · Living Planet Index(Secretaris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Natural Capital Index(RIVM, The Netherlands)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ization Index(Foreign Policy Magazine) · World Competitiveness Index(IMD) · Growth Competitiveness Index(WEF) · Current CompetitivenessIndex(WEF) · Living Planet Index(Secretarist of the Convention on Biologocal Diversity) · The Globalization Index(G-Index,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2. 선진화 측정 방법

○ (지표 구성) 선진화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경제적 풍요도, 사회복지, 잠재 성장력, 환경, 세계화의 5개 중분류를 구성하고, 이들 중분류에 속하는 26개 세부 지표를 선정

- 단, 한국의 경우 세부지표는 23개임
- 특히, 세부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의 선진화 지수 분석을 위한 지표 선정은 정성적인 데이터의 경우 시계열 자료가 확보 가능한 데이터에 한정하였음

○ (지수화 방법) OECD 회원국 가운데 총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5가지 영역을 부분별 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한국의 각 정권별 선진화 지수는 정권 초 대비 말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산출

- **조정화 단계** : 각각의 부문별 지표의 절대비교와 판독의 용이성을 위해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조정을 통해 범위를 확정함
 - 조정화 단계를 거친 각각의 지표들을 가중평균하여 경제의 풍요로움, 사회(삶의 질), 잠재 경제력, 환경, 세계화의 부문별 지수를 산출함
- **한국의 정권별 선진화 지수 도출** : 각 정권별 세부 지표의 정권 초 대비 말의 변화율을 도출한 후, 5개 중분류별 세부지표들의 평균을 중분류 지표의 선진화 지수로 하고, 전체 선진화 지수는 다시 이들의 평균을 이용함

○ (사회지수중 제도 신뢰도 산출방법) 국민의 제도의 신뢰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미시간대학의 사회연구원(Th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작성하는 World Value Survey를 이용함

- 제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각 언론, 의회, 정당, 공공서비스,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를 가중평균하여 사용함

< 선진화 지수 - OECD >

구분	항목	부호	출처
경제적 풍요도 (물질적 충족도)	① 1인당 GDP 규모 ② 경제규모(실질GDP) ③ 가계소비규모 ④ 실업률 ⑤ GDP대비 경상수지 ⑥ GDP대비 재정적자	(-)	① OECD ② OECD ③ IMF ④ OECD,ILO ⑤ OECD ⑥ OECD
사회복지 (삶의 질)	① 범직율 ② 부패율 ③ 제도 신뢰도 ④ GDP대비 의료지출비	(-) (-)	① OECD ② Transparency International ③ world value survey ④ OECD
잠재 성장력	① GDP대비 R&D 투자 비중 ②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수 ③ 국가정보화 지수 ④ 논문 발표수 ⑤ 기술무역수지 ⑥ GDP대비 교육지출비중		① OECD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③ 한국정보사회진흥원 ④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⑥ OECD
환경	① GDP대비 에너지소비 ② 종이 재활용률 ③ CO2 방출량 ④ 에너지원단위	(-) (-) (-)	① OECD ② OECD ③ OECD ④ IEA
세계화	① GDP대비 무역량 ② 평균 관세율 ③ 천명 당 인터넷 유저 ④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⑤ 국내거주 외국인수 ⑥ 외국인 방문자수	(-)	① WB, OECD ② Gwartrey & Lawson(2007) ③ WB, OECD ④ OECD ⑤ OECD ⑥ OECD

주 : 부호 란의 (-) 표시된 지표는 중 지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 선진화 지수(案) - 한국 >

구분	항목	부호	출처
경제적 풍요도 (물질적 충족도)	① 1인당 GDP 규모 ② 경제규모(실질GDP) ③ 실업률 ④ 가계소비규모	(-)	① 한국은행 ② 한국은행 ③ 통계청 ④ 한국은행
사회복지 (삶의 질)	① 조세부담율 ② 범죄발생건수 ③ GDP대비 의료지출비 ④ 의료기관수	(-) (-)	① 재정경제부 ② 대검찰청 ③ OECD ④ 보건복지가족부
잠재 성장력	① GDP대비 R&D 투자 비중 ②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수 ③ 기술무역수지 ④ GDP대비 교육지출비중 ⑤ 특허등록건수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④ 교육인적자원부 ⑤ 특허청
환경	① 오수(하수) 발생량 ② 면적대비 산림규모 ③ 시간, 인구대비 CO2 방출량 ④ 종이 재활용률 ⑤ 에너지원단위 ⑥ 1차 에너지소비량(석유환산)	(-) (-) (-) (-)	① 환경부 ② 국토지리연구원 ③ 환경부 ④ 환경부 ⑤ 환경부 ⑥ 환경부
세계화	① GNI대비 무역량 ② 외국인직접투자(FDI) ③ 해외이주 신고자 수 ④ 외국인 관광객 수		① 한국은행 ② 한국은행 ③ 외교통상부 ④ 통계청

주 : 부호 란의 (-) 표시된 지표는 중 지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3. 한국과 OECD 회원국 간 선진화 수준 비교

○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선진화 수준) 한국의 선진화 정도를 OECD 23개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2007년 현재 선진화 지수가 51.5점으로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17위를 차지,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원인** : 이는 한국이 경제적 풍요도, 잠재성장력, 세계화는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중위권이나, 사회복지, 환경 부문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부문이 최하위권에 있기 때문임
 - **한국의 경제적 풍요도 중위권** : 한국의 경제적 풍요도 지수는 53.4점으로 비교대상 23개국 가운데 13위 수준이며, 이를 국가 간 비교해보면 미국 71.2보다는 훨씬 낮고, 일본 59.1점, 독일 56.7점과도 격차가 존재
 - **한국의 세계화 또한 중위권** : 또 세계화 지수는 52.1점으로 12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역시 미국 65.2점과는 큰 차이가 존재함
 - **중하위권 수준의 환경 부문** : 한국의 환경 지수는 52.3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16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GDP 대비 에너지 소비 지수가 50점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17위, 인구 대비 CO2 방출량 지수 점수가 44.4점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 **하위권의 사회복지 지수** : 한국의 사회복지 지수는 45.4점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20위로 최하위권인데, 이는 사회복지 부문의 지수를 이루는 부패율 지수가 38점으로 최하위, 그리고 GDP 대비 의료지출비 지수가 40.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임
 - **상대적으로 선진화 정도가 높은 잠재성장력** : 잠재성장력 지수의 경우 54.2점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10위를 차지하여, 다른 지표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선진화 지수의 국가 간 비교 >

구분	지수	선진화 지표				
		경제적 풍요도	사회복지	잠재 성장력	환경	세계화
한국	51.5	53.4	45.4	54.2	52.3	52.1
미국	55.2	71.2	41.9	72.7	25.1	65.2
일본	54.7	59.1	53.6	58.9	51.4	50.5
독일	54.8	56.7	55.5	52.5	53.7	55.4

4. 한국의 선진화 과정 비교

4.1. 종합 평가

- (가장 높은 선진화에 기여한 박정희 정부)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가장 기여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로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의 선진화에 가장 크게 기여
 - 박정희 정부(1963~1979년), 선진화에 가장 큰 기여 : 각 정부별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박정희 정부가 해당 정부의 초기 대비 말기 선진화 진전 정도가 153.6%로 타 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 선진화 1위 : 박정희 정부 당시 경제적 풍요도 지수는 408.9% 개선, 잠재성장력 지수 또한 228.1%나 개선됨
 - 사회복지 선진화는 노무현 정부 : 사회복지 선진화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당시 8.7% 개선되었음
 - 김대중 정부는 환경 선진화 : 환경 선진화는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당시 26.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타 정부에 비해 가장 높은 개선도를 보임
 - 세계화는 전두환 정부(1980~1987년)와 김영삼 정부(1993~1997) 때 크게 진전 : 세계화 지수는 전두환 정부(1980~1987년) 당시 185.6%나 개선, 타 정부에 비해 개선도가 가장 높음
 -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표방한 김영삼 정부에서도 세계화가 크게 진전됨

< 각 정부별의 선진화 정도 평가 >

(%)

구 분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선진화 지수	153.6(1)	44.3(2)	36.5(4)	42.7(3)	28.1(5)	23.8(6)
경제적 풍요도 지수	408.9(1)	98.2(2)	62.6(3)	34.7(5)	52.8(4)	37.6(6)
사회복지 지수	-43.2(6)	-3.2(5)	3.0(3)	1.0(4)	7.6(2)	8.7(1)
잠재성장력 지수	228.1(1)	58.8(4)	150.4(2)	34.8(6)	61.1(3)	56.4(5)
환경 지수	-0.4(3)	-117.9(6)	-15.8(5)	-6.5(4)	26.5(1)	4.6(2)
세계화 지수	87.2(3)	185.6(1)	-17.5(6)	149.6(2)	-7.4(5)	11.8(4)

주 1. 선진화 지수는 각 정부별 입수 가능 데이터의 초기 값과 말기 값의 증감률의 평균.

2. () 내는 정부별로 각 부문별 기여도 순위를 나타내는 것임.

4.2. 정부별 평가

○ (박정희 정부(1963~1979년) 평가) 경제적 풍요도의 급격한 증가, 잠재성장력의 급상승 등으로 선진화 지수가 153.6%나 개선되었으나 사회복지는 후퇴

- 경제적 풍요도의 급격한 증대 : 경제적 풍요도가 급격히 증대된 이유는 가계소비가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이 1,620%에 이룸
- 잠재성장력의 급상승 : 이 시기 특히 등록 건수와 GDP 대비 R&D 비중이 각각 536.3%, 약 130%씩 급상승하면서, 잠재성장력 또한 급등
- 세계화의 진전 : 세계화 지표로 선정된 GDP 대비 교역량 비중,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이민자수, 외국인관광객 유입수가 각각 62.5%, 97%, 91.8%, 97.4% 증가함에 따라 세계화 또한 동반 진전
- 사회복지 선진화 후퇴 :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지수는 조세 부담률의 급증(96.5%)과 범죄율의 증가(50.3%)로 정부 초에 비해 말에 비해 43.2%나 감소, 크게 후퇴함

< 박정희 정부 시 세부 지표별 선진화 개선 기여 평가 >

구 분	지수 값	원 인
경제적 풍요도	408.9	- 가계 소비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620%
사회복지	-43.2	- 조세부담률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96.5% - 범죄율의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0.3%
잠재 성장력	228.1	- 특허 등록 건수의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36.3% - GDP 대비 R&D 비중 급증 : 129.9%
환경	-0.4	- 산림 면적의 소폭 감소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0.8%
세계화	87.2	- 전반적인 개선
선진화 지수	153.6	- 경제적 풍요도의 급격한 증가 - 잠재성장력의 급상승 - 세계화의 진전

주 : 선진화 지수는 각 정부별 입수 가능 데이터의 초기 값과 말기 값의 증감률의 평균.

○ (전두환(1980~1987년) 평가) 경제적 풍요도의 급증세 지속, 세계화의 급진전 등으로 선진화 지수가 44.3% 개선되었으나 환경 부문은 크게 후퇴

- 세계화의 진전 : 세계화 지표로 선정된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가 집권 초 대비 집권 말 약 643%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관광객 유입수가 또한 114.1%나 증가하여 세계화의 진전에 기여
- 경제적 풍요도의 급증세 지속 : 경제적 풍요도가 급격히 증대된 이유는 가계소비 급증세(130.1%)가 이어지고 GDP 규모가 급격히 확대(120.4%)되면서 1인당 GDP가 동반 상승(약 102%)하였기 때문임
- 잠재성장력 상승세 지속 : 이 시기 특허 등록 건수와 GDP 대비 R&D 비중이 각각 536.3%, 129.9%로 급상승하면서, 잠재성장력 또한 급등
- 크게 후퇴한 환경 부문 선진화 : 하지만 환경 분야의 지수는 에너지 원단위의 급상승(550%)과 이산화탄소 배출량(35%)과 오수 발생량(31.8%) 증가로 정부 초에 비해 말에 비해 약 118%나 감소함

< 전두환 정부 시 세부 지표별 선진화 개선 기여 평가 >

(%)

구 분	지수 값	원 인
경제적 풍요도	98.2	- 가계 소비 급증세 지속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30.1% - GDP 규모의 급격한 확대 지속 : 동 120.4% - 1인당 GDP 급증 : 동 101.9%
사회복지	-3.2	- 범직율의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9%
잠재성장력	58.8	- GDP 대비 R&D 비중 급상승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97.5% -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수 급증 : 114.3%
환경	-117.9	- 에너지 원단위의 급상승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50% -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오수 발생량 증가 : 동 각각 35%, 31.8%
세계화	185.6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642.9% 증가 - 외국인 관광객수 유입 증가세 지속 : 동 114.1%
선진화 지수	44.3	- 경제적 풍요도의 급격한 증가 - 잠재성장력의 급상승 - 세계화의 진전

주 : 선진화 지수는 각 정부별 입수 가능 데이터의 초기 값과 말기 값의 증감률의 평균

○ (노태우(1988~1992년) 평가) 잠재성장력의 지속적인 급상승과 경제적 풍요도 증가세 지속으로 선진화 지수가 36.5% 개선되었으나, 환경과 세계화 부문이 후퇴

- 잠재성장력 상승세 지속 : 이 시기 특히 등록 건수와 기술무역 수지비가 각각 383.1%, 300%로 급상승하면서, 잠재성장력 또한 급등
- 경제적 풍요도의 급증세 지속 : 앞의 두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소비 급증세(104.2%)가 이어지고 GDP 규모(76.7%)의 확대가 지속되면서 1인당 GDP도 동반하여 약 69.7%나 확대되었기 때문임
- 환경과 세계화 부문 선진화 후퇴
 - 환경 : 폐지 재활용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원단위, GDP 대비 에너지 사용 비중의 4개 지표가 각각 31.7%, 46.1%, 9.1%, 14.8% 악화
 - 세계화 : GDP 대비 무역 비중,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이민자 수가 각각 18.8%, 30.3%, 43.1% 감소하였음

< 노태우 정부 시 세부 지표별 선진화 개선 기여 평가 >

구 분	지수 값	원 인
경제적 풍요도	62.6	- 가계 소비 증가세 지속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04.2% - GDP 규모의 확대 지속 : 동 76.7% - 1인당 GDP 증가세 지속 : 동 69.7%
사회복지	3.0	- 병원 수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44%
잠재 성장력	150.4	- 기술무역 수지비 대폭 개선 : 집권 초 대비 말 개선률 300% - 특히 등록 건수 급증 : 383.1%
환경	-15.8	- 이산화 탄소 배출량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46.1% - 오수 발생량 증가 : 동 31.7%
세계화	-17.5	- 외국인 관광객 유입수를 제외한 4개 지표의 악화
선진화 지수	36.5	- 경제적 풍요도의 급격한 증가 - 잠재성장력의 급상승 - 사회복지 선진화 다소 진전

주 : 선진화 지수는 각 정부별 입수 가능 데이터의 초기 값과 말기 값의 증감률의 평균.

○ (김영삼 정부(1993~1997년) 평가) 세계화외가 급격히 진전된 반면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의 선진화 속도가 둔화되고 환경 선진화가 후퇴하면서 선진화 지수가 전 정부에 비해 소폭(6.2%p) 개선됨

- 세계화의 급진전 : GDP대비 외국인투자의 급증으로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이 567.6%되고, GDP대비 무역량 증가도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25.9%를 보여, 세계화가 급진전됨
- 경제적 풍요도 개선의 둔화 : 실질GDP와 가계소비규모가 각각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이 42.1%, 49.8%의 증가로 전 정부에 비해 둔화되면서, 경제적 풍요도 지수 또한 전 정부에 비해 개선도가 하락
- 환경의 악화 : CO2 배출량 증가세 지속(37.7%)과 오수 발생량 증가(16.5%), 1차 에너지 소비량 증가(9.4%)로 환경 분야의 선진화가 소폭 후퇴

< 김영삼 정부 시 세부 지표별 선진화 개선 기여 평가 >

(%)

구 분	지수 값	원 인
경제적 풍요도	34.7	- 실질 GDP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42.1% - 가계소비규모 : 동 49.8% 증가
사회복지	1.0	- 의료기관수의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34.0% - 범죄발생건수의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6.9%
잠재 성장력	34.8	- 특허등록건수의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14.7%
환경	-6.5	- CO2 배출량의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37.7% - 오수 발생량의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2.5%
세계화	149.6	- GDP대비 외국인투자의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67% - GDP대비 무역량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25.9%
선진화 지수	42.7	-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 - 잠재성장력과 경제적 풍요도의 둔화

주 : 선진화 지수는 각 정부별 입수 가능 데이터의 초기 값과 말기 값의 증감률의 평균.

- (김대중 정부(1998~2002년) 평가) 경제적 풍요도, 잠재성장력, 환경은 전 정부에 비해 선진화 정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계화의 후퇴로 선진화 지수가 28.1%에 그침
 - 경제적 풍요도 개선 : 1인당 실질 GDP 규모, GDP 규모가 집권 초기 대비 말에 각각 56.3%, 60.8% 개선되었으며 실업률 또한 낮아지면서 동 55.7%나 개선되어 이들 부문은 전 정부보다 선진화도가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음. 또 가계소비 규모 또한 전 정부보다는 미약하나 약 38% 정도 개선
 - 잠재성장력의 개선 : 기술무역수지비가 집권 초기 대비 말에 283.3%나 개선되면서 잠재성장력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허등록건수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각각 14.4%, 15.9% 감소
 - 환경 부문 선진화 정도 최고 : 에너지원단위가 집권 초 대비 말에 164.2%나 개선됨에 따라 환경 분야도 역대 최고 수준(26.5%)으로 선진화됨
 - 전 정부에 비해 세계화 대폭 후퇴 : GDP 대비 무역량은 집권 초 대비 말에 14.3% 감소하였으며, 해외이주 신고자 수 또한 동 20% 감소함에 따라 세계화가 소폭 후퇴(-7.4%)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 정부(149.6%)와 비교해 볼 때 세계화 부문의 선진화는 급격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김대중 정부 시 세부 지표별 선진화 개선 기여 평가 >

(%)

구 분	지수 값	원 인
경제적 풍요도	52.8	- 실업률의 개선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5.7% - 1인당 실질GDP의 소폭 개선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6.3%
사회복지	7.6	- 의료기관수의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34.0%
잠재 성장력	61.1	- 기술무역수지의 급격한 개선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283.3%
환경	26.5	- 에너지원단위의 급격한 개선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64.2%
세계화	-7.4	- GDP대비 무역량의 감소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4.3% - 해외이주 신고자 수의 감소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20.0%
선진화 지수	28.1	- 잠재성장력의 개선 - 환경 분야의 소폭 개선 - 세계화에 있어 급격한 후퇴

주 : 선진화 지수는 각 정부별 입수 가능 데이터의 초기 값과 말기 값의 증감률의 평균

○ (노무현 정부(2003~2007년) 평가) 정부별 순위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김대중 정부 후에 지속적으로 선진화 지수가 둔화되어 23.8%의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그침

- 경제적 풍요도의 둔화 지속 : 1인당 실질GDP가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6.7%로 소폭 개선된 것 외에 실질 GDP 등의 둔화가 지속
- 세계화 다소 개선 : 세계화 지수가 11.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선진화 역대 최고 : GDP대비 의료지출비가 집권 초 대비 말에 18.5% 증가하고, 의료기관수 또한 동 11%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 정부 이래 증가일로에 있던 범죄건수가 8.7% 감소하면서 사회복지의 선진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짐

< 노무현 정부 시 세부 지표별 선진화 개선 기여 평가 >

(%)

구 분	지수 값	원 인
경제적 풍요도	37.6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7.6%인 1인당 실질 GDP이외의 실질 GDP. 실업률, 가계소비 규모의 증가가 둔화세를 지속
사회복지	8.7	- GDP대비 의료지출비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8.5% - 의료기관수의 증가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1.0%
잠재 성장력	56.4	- 특허등록건수의 급증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80.1%
환경	4.6	- 오수 발생량 증가세로 돌아섬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12.5%
세계화	11.8	- 평균관세율의 악화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52.7% - 해외이주 신고자 수의 감소 : 집권 초 대비 말 증감률 -45.6%
선진화 지수	23.8	- 사회복지 면에서 소폭 개선 - 경제적 풍요도, 잠재성장력, 환경, 세계화의 둔화

주 : 선진화 지수는 각 정부별 입수 가능 데이터의 초기 값과 말기 값의 증감률의 평균.

5. MB 정부의 선진화 과제

○ 경제적 풍요도의 지속 향상

-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가운데 경제적 풍요도가 하위권에 있어 여전히 경제적 풍요도의 향상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잠재성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앞으로 선진화 비전을 분명히 하고 국력을 결집시키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세계화 기반의 전략적인 활용

- 한국의 선진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한미, 한중, 한일 FTA 완결 등을 통해 세계화 기반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함
 - 특히 세계화 부문에서 외국인 거주자 증대와 같은 다문화 촉진, 외국인 방문자수와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꾀해야 함

○ 환경 분야 선진화 노력 강화

- 범국민적인 에너지 원단위 개선 노력,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환경 기술 개발 강화, 환경 정부개발원조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에도 보다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양극화 심화, 국내 사회의 다원화 진전, 사회적 신뢰도의 중요성 증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조화로운 발전 추구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선진화가 정부별로 특정 분야에 편향되고 집중된 경향을 보여 왔으나, 지금부터는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국가비전 책정 시 선진화 대상 각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구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통합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 Gwartney, J. & Lawson, R.,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Economic Freedom Network, 2007.
- Schwab Klaus, 'Report on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Industry 1979,' *European Management Forum: Geneva, 1979.*
- 윤창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전략: 위기를 넘어 선진화로」, 한국경영학회 '07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7.
- 전상인, 「선진화를 위한 국가발전 모델의 모색」, 한국선진화포럼제 22차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2008년 10월.
- 정책기획위원회,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정부 3주년기념 심포지엄자료, 2006.
- 한국선진화포럼, 「선진한국의 나아갈 길」, 한국선진화포럼 연구보고서001, 2007년 12월.
- 內閣府, 『日本21世紀ビジョン』, 國立印刷局, 2005年 5月.

<웹사이트>

- European Commission(EC)
- IEA
- Institute for the Management Development(IMD)
- IMF
- OECD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World Economic Forum(WEF)
- World Bank
- 교육과학기술부
- 기획재정부
- 대검찰청
- 지식경제부
- 통계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한국은행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실업률 다소 개선

○ 7월 중 실업률은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15만 3천명 증가하고 실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감소함에 따라 6월보다 0.1%p 감소한 3.1%를 기록

- 7월 현재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가 730.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635.3명의 30.6%를 차지함
- 또한 15~29세 청년 실업자 수가 33.4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76.9만 명의 43.4%를 차지하고 청년실업률은 7.4%로 전월보다 -0.2%p 감소함
-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 증가하였음
-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고용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6월	7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0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4.4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3.4	-
		수출	14.4	14.1	9.9	18.2	17.3	23.4	17.0	-
	공급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6	8.6	6.7	-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96	2,390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1	3.1
		수입	18.4	15.2	7.5	25.9	28.3	29.9	32.3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18.2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1	-4	-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0.5	12.5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5	5.9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 상승세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강세폭 다소 완화

- **금리**: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 등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국채 10년물 : 3.93→3.90%)
- **환율**: 지난주 달러화가 대폭 강세를 보인데 따른 영향으로 기술적 조정이 일어나면서 유로화는 약세폭이 둔화된 반면, 엔화는 소폭 강세로 전환 (\$/€ : 1.5006→1.4926, ¥/\$: 110.25→109.27)

○ (국내 금융 시장) 국채 금리 상승세로 반전

- **주가**: 주 초반 유가급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신용불안 재발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침체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1,568.7→1,562.7)
- **금리**: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70→5.76%)
- **환율**: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역외 세력의 달러화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유업체의 결제 수요 증가 등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1,027.9→1,039.4)

○ (전망) 경기지표의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증시의 침체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8.8	8.13 ¹⁾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568.7	1,562.7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5.70	5.76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027.9	1,039.4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1,734	11,642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3,168	13,303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41	3.93	3.90
	일본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29	1.48	1.46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006	1.4926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10.18	109.27
	두바이(\$/배럴)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15.20	110.2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8.12) 기준.